

2024 문화계 결산 <2> 공연

# 문화예술기관 창단 기념 공연·지역 인물 다룬 작품 ‘풍성’

올해는 창단 'N주년'을 맞은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 해였다. 광주시립 예술단체인 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창극단, 전남도립국악단과 전남문화재단 등이 저마다 비전을 제시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창단 35주년을 맞은 광주시립창극단이 지난 11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창극 '여울물 소리'는 눈길을 끈다. 황석영 작가의 문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아들 황호준 연출가가 부친의 동명 작품을 최초로 각색하고 극화했다.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비극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판소리 서사 구조에서 확장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연주회 '이카루스'를 지난 9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쳤다. 1994년 창단 이래 남도국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짚고 미래를 뚫아보는 공연으로 목포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카메라라 전남 등이 협연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국립남도국악원도 지난 7월 기념공연 '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무대에 올렸다. 국악원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해동동포 및 국

시립창극단 35년 '여울물소리'

남도국악원 20년 '한국을 가슴에...'

푸른연극마을 '사형수 김대중'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10년후그라운드 '시간의 숲, 無等'도

악단체 초청 연주'에 참가했던 85개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운무용단을 필두로 미국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 등 총 34명이 전통예술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전남문화재단은 올 한해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에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도내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완도·영광·무안·구례·장흥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보성에서는 '독랑역 굿바이 썸머!', '상설 락(樂)' 등 추억과 전통예술이 깃든 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특별연주회 '이카루스'를 펼쳤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 동구와 10년후 그라운드 5~11월 무등산 일원에서 선보인 장소특정형 연극 '시간의 숲, 無等'.

대로 지역민을 만났다.

고흥에서는 '영화가 있는 밤' 행사가 열렸다. 영화감상을 테마로 돛자리영화제와 보물찾기 등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외 나주 '한 여름밤의 공연 여행'은 마술과 난타, 클래식 앙상블의 하모니로 채워진 시간이었다.

한편 민간단체들의 약진도 도드라졌다.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모여 결성한 C·N PIANO는 창단 20돌을 맞았다.

전남대 사범대학과 예술대 피아노 전공 동문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피아노, 삶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베토벤, 로시니, 엘가의 곡을 들려줬다. C·N 피아노는 그동안 정기 연주회 38회를 포함해 피아노를 서거 30주년 기념 공연, 쇼팽의 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민과 소통해 왔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역사적 인물들을 극화하는 연극도 다수 상연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공연이다.

먼저 전남도 등 주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이 11월 5일부터 이틀간 목포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극 '나는 김대중이다'가 관객들을 만났으며 퓨전국악그룹 퀸, 락밴드 데이브레이크,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하는 '평화콘서트'도 펼쳐졌다.

격동의 현대사와 파란의 생애를 살았던 김 전 대통령의 육중 투쟁기를 다룬 '사형수 김대중'도 입소문을 탔다. 푸른연극마을과 김대중추모사업회가 10월 29-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였으며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했던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대통령의 육중 수난사를 무대화했다.

이 밖에도 광주의 문화자원인 의재 허백련, 오방 최흥중, 석야 최원수를 극화한 공연도 펼쳐졌다. 광주 동구와 10년후 그라운드가 5~11월 무등산 일원에서 선보인 장소특정형 연극 '시간의 숲, 無等'이 그것.

공연은 인문산책길 '무등가는 길'의 주요 스팟을 이동하며 장소특정형 연극(이동극)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유피시어터 소속 및 객원배우들은 문향정, 의재미술관, 춘설현 등 자연이라는 가설 무대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진중한 연기를 펼쳤다.

/글·사진·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 울려 퍼지는 재즈 선율

27~28일 '재즈 페스티벌'

클래식과 재즈 연주에 알맞은 음악전용 소극장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이 최근 동구에 개관했다. 이를 기념해 그래미상을 수상한 알토색소포니스트 짐 스타니데로, 재즈기타 테크니션 방병조 등이 축하 공연을 펼친다.

아트스페이스 흥학관과 아트플래닛이 '재즈 페스티벌'을 27, 28일 각각 오후 7시에 흥학관에서 연다. 양일 재즈밴드가 출연해 자유분방한 재즈 선율을 들려준다.

먼저 27일은 재즈보컬 박하경과 윤덕현, 방병조(재즈기타)가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알토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테너 색소포니스트 황태룡을 비롯해 강운숙(재즈 피아노), 전사무엘(베이스), 원익준(드럼)과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28일은 재즈 전문잡지 'Downbeat'에서 '알토 색소폰의 거장', 가디언지로부터 '경이로운 즉흥 연주실력을 지녔다'는 평을 받은 짐 스타니데로가 출연한다. 이와 함께 재즈 피아니스트 폴 커비, 김대호(베이스), 김민찬(드럼)이 울림을 선사한다.

한편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폴사이즈 그랜드 피



알토색소포니스트 짐 스타니데로 <박수용 제공>

아노, 음향 및 조명 시설을 갖춘 140석 규모의 연주홀이다. 1920년 일제 강점기에 광주 청년들의 문화예술, 교육 목적으로 건립된 이후 여러 강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다.

공연에 출연하는 박수용 호신대 교수는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옛 흥학관 터에서 재개관했다"며 "이를 기념해 올해 다운비트 국제비평가 설문에서 '알토 색소폰 부문 TOP 5'에 오른 짐 스타니데로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했다. 27일 전석 3만원, 28일 5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조선 선비의 품격

고영 작가 '한복의 미학' 전

31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 가운데 선비는 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학문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향촌 질서와 토대를 이루는 주요 계층이었다.

선비들이 입었던 옷은 시기와 절기, 공간에 따라 다양했다. 이들의 한복은 시대의 미학이 투영된 고유의 의복으로서의 품위를 지녔다.

조선 선비의 품격의 상징인 의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대(총장 김동진) 호심미술관은 31일까지 고영 작가의 '조선 선비의 품격-한복의 미학'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묘와 사직 제사 때 수행 관리의 제례 옷 제복(祭服)을 비롯해 조선 중기 이후 선비들이 평상시 입던 겹옷 도포(道袍), 유학자의 상징이자 법복(法服)으로 선비의 평상복 심의(深衣) 등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나타내는 전통 의상 10여 점을 선보인다.



'제복'

제복에서는 위엄과 품격,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미지가 배어나 온다.

성균관대 대학원 의상학 박사인 작가는 그동안 드라마 의상 및 재현 복식 제작을 맡았다. 또한 영암 구림 마을에 '주식회사 고영'을 설립, 전통 한복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탄탄한 학문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복 연구자가 많지 않은 요즘, 고영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조선 선비의 품격을 지닌 전통 한복이 내재한 한국의 고유 미학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세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